

제공일자	2012. 11. 14(수)	담당자	윤성훈 동향분석실장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16 010-5583-9417	총10매

제목 : 2013년 보험산업, 저성장-저금리로 성장세 둔화 전망

보험연구원(원장:김대식)은 『201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조선히텔(소공동) 오키드룸에서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발표에 나선 윤성훈 동향분석실장은 2013년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2012년보다 0.4%p 상승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소비자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경상수지 흑자 지속,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절상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FY2013 보험산업은 FY2012과 마찬가지로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생·손보 전체적으로 FY2012보다 10%p 하락한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FY2013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축성보험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3.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보장성보험은 유지율 개선에 따른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 유지와 신상품 출시 확대에 1.4%, 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회복 지연과 FY2012 성장을 이끈 제도변화의 효과 소멸로 5.0%,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의 안정적 성장세로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FY2013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이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여 원수보험료가 10.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종목별로는 장기손해보험이 저축성보험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12.1% 증가하고, 연금부문은 노후대비 수요 증가, 마케팅 측면에서의 세제 혜택 부각 등으로 1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내수시장 부진,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 등으로 2.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았다. 일반손해보험은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FY2012와 유사한 7.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윤성훈 실장은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라는 시장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신뢰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FY2013 보

험산업의 경영과제로서 성장성 측면에서는 ① 기회요인으로서 인구고령화, ② 신성장동력으로서 보유 및 출재 역량 강화, 저금리에 대한 대응으로는 ③ 저금리 환경하의 시나리오 경영, ④ 저금리 환경 하의 자산운용 전략 수립, 그리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⑤ 소비자보호에 대한 적극적 인식 확대와 보험회사의 사업 관행 혁신 등 다섯 가지 경영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민영건강보험의 수요확대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적연금시장의 성장 추세를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재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해 기존의 위험회피 목적의 과도한 출재전략에서 탈피, 보유 및 출재 역량을 강화하여 재보험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자본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자산·부채의 예상위험을 전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저금리는 보험회사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금리 시나리오 하에서 자산 및 상품구성에 예상되는 위험을 전사적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저금리 환경하에서 다양한 금리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부채 가치의 상승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므로 보험회사가 생존하고 지속성장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하여 법규준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의 경영 시스템과 관행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첨부 : 『201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201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 경제 동향과 전망

□ **(실물경제)** 2013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다소 회복될 것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되어 2012년보다 0.4%p 높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동향** : 2012년 국내경제는 수출 및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2011년(3.6%)보다 1.5%p 하락한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GDP갭의 마이너스폭 확대로 2011년보다 1.7%p 낮은 2.3%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수입이 모두 2011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수출 증가율(-1.8%)이 수입 증가율(-1.4%)을 하회함에 따라 상품수지는 2011년보다 26억 달러 줄어든 28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전망** : 2013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다소 회복될 것이나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 침체, 기업부채 등의 불확실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어 2012년 보다 0.4%p 높은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민간소비는 실질국내총소득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개선될 것이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2012년에 비해 0.1%p 상승한 1.7%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소폭 회복과 이에 따른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실적 악화와 과도한 기업부채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교역량 증가로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내수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수입도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원화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안정이 예상되어 2.5%를 기록할 전망이다.

- 고용상황은 수출 증가세는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내수 부진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12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시장)** 2012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로 국고채 금리는 연간 3.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2013년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과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여건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여 연간 3.1%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절상될 것으로 보임.

○ **동향** : 2012년 한국은행은 하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2.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지속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세가 지속됨.

- 2012년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안전자산 선호현상 지속으로 3.3%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힘입어 월평균 1,111~1,180원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음.

○ **전망** : 2013년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과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여건 등으로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며 연간 3.1%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절상된 1,081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주요국 양적완화정책, 국가신용도 상향 조정 등 원화강세 요인으로 소폭 절상된 1,081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보험 산업 지표 전망

□ **(개관)** FY2013 보험산업은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FY20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명표 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인상 전 연금가입 확대와 즉시연금 세제혜택 종료 전 즉시연금 가입 확대로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FY2013에는 이러

한 효과들이 사라지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증가와 소득공제 한도 확대 효과 등에 힘입은 개인연금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FY2013에도 이와 같은 장기손해보험 및 개인연금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증가율은 둔화될 것임.

□ **(생명보험)** FY2013 생명보험산업은 보장성보험의 플러스 성장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단체보험의 안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요인 소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저성장으로 FY2012보다 2.7%p 하락한 3.8%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3 **보장성보험**(종신·CI·상해·암·질병 등) 수입보험료는 계속보험료의 안정적 성장과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를 위한 신상품 출시가 확대되면서 플러스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증가율은 1.4%에 그칠 전망이다.

- 최근 저축성보험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의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통한 보장성보험 수요 확대가 전망됨.
- 그러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고가인 종신보험의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FY2013 **저축성보험**(생사혼합·생존·변액유니버설·변액연금)은 FY2012에 저축성보험 성장을 이끈 일반저축성보험의 제도변경 효과가 사라지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변액저축성보험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5.0%의 증가율이 전망됨.

- FY2013에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일반저축성보험의 금리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 FY2012 일반저축성보험의 고성장을 이끈 생명표 개정, 세제개편 등의 효과가 소멸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하여 일반저축성보험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유럽재정위기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3 **단체보험**(일반단체보험·퇴직보험·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

계약의 퇴직연금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계속보험료 중심의 성장을 나타내면서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7.9%로 대규모 신규계약에 의한 퇴직연금의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둔화에 따라 고용증가세와 임금상승률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손해보험)**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및 연금부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10.3% 증가가 전망됨.

○ FY201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중심의 저축성보험, 재물보험 등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나 증가율은 전년에 비하여 둔화된 12.1%가 될 것임.

- 저축성보험은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수입 확대 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보험회사들의 금리 부담과 공시이율 관련 제도 강화 움직임 등 신규판매 제약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22.7% 증가가 전망됨.
- 상해·질병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보험료 규모의 축소 효과로 증가율이 7.7%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재물보험은 계속보험료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고성장세에 대한 기저효과로 8.6%로 둔화될 전망이다.

○ FY2013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보험)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양호한 증가세에 힘입어 16.1% 증가가 전망됨.

- 개인연금은 고령화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케팅 측면에서 세제혜택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23.6% 증가가 전망됨.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전환 수요의 소진 이후 신규 가입 확대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6.7% 증가가 전망됨.

○ FY201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 자동차 내수 시장의 위축 등으로 2.8%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 내수 시장의 위축으로 큰 폭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손해율 안정화로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이 여전히 상존할 것임.

- 단, 수입차 확대에 의한 고액 담보물건의 증가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효과 등이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 수 있음.
- o FY2013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통신 및 휴대폰 관련 시장 성장에 따른 보증 및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세로 7.9% 증가가 전망됨.
 - 화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 확대 효과로 소폭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다른 보험종목으로의 물건이탈 추세가 지속되면서 1.3% 증가에 그칠 것임.
 - 해상보험은 적하보험 저성장과 선박보험 부진이 예상되어 3.9% 성장할 전망이다.
 - 보증보험은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의 양호한 성장세 등으로 6.0% 증가가 예상됨.
 - 특종보험은 상해보험, 책임보험, 기타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세로 9.6% 증가가 전망됨.

<붙임 2>

2013년 보험산업 및 경제 주요 전망치

1.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치

(단위 : 억 원, %)

종목		FY2011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F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 명 보 험	보장성	297,243	0.0	300,484	1.1	316,288	6.4	320,637	1.4
	저축성	504,609	9.6	552,739	9.5	630,943	25.0	661,772	5.0
	개인소계	801,852	5.9	853,223	6.4	947,232	18.1	982,409	3.7
	단 체	76,508	5.3	82,557	7.9	82,557	7.9	86,970	5.3
	합 계	878,360	5.8	935,780	6.5	1,029,789	17.2	1,069,379	3.8
손 해 보 험	장기손보	341,432	21.2	394,505	15.5	412,703	20.9	462,537	12.1
	저축성	97,465	55.8	130,685	34.1	142,786	46.5	175,143	22.7
	상해·질병	146,044	11.4	159,010	8.9	160,210	9.7	172,475	7.7
	재물	28,993	33.1	33,558	15.7	36,994	27.6	40,168	8.6
	기타 ¹⁾	68,930	3.9	71,253	3.4	72,712	5.5	74,751	2.8
	연금부문	66,900	24.8	78,448	17.3	78,448	17.3	91,080	16.1
	개인연금	34,273	38.8	43,537	27.0	43,537	27.0	53,815	23.6
	퇴직보험	835	-84.2	-	-	-	-	-	-
	퇴직연금	31,791	34.6	34,910	9.8	34,910	9.8	37,265	6.7
	자동차	130,415	5.1	132,586	1.7	133,002	2.0	136,786	2.8
	일반손보	70,901	12.7	76,027	7.2	80,052	12.9	86,383	7.9
	화재	2,636	-0.9	2,606	-1.1	3,539	34.3	3,584	1.3
	해상	8,699	12.7	8,191	-5.8	8,269	-4.9	8,595	3.9
	보증	15,172	16.1	16,372	7.9	16,545	9.0	17,536	6.0
	특종 ²⁾	44,394	12.5	48,857	10.1	51,698	16.5	56,667	9.6
	합 계	609,648	16.7	681,566	11.8	704,204	15.5	776,786	10.3
전 체		1,488,008	10.0	1,617,346	8.7	1,733,993	16.5	1,846,165	6.5

주: 1)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3)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E)	2013(F)
실질GDP	2.3	0.3	6.3	3.6	2.1	2.5
민간소비	1.3	0.0	4.4	2.3	1.6	1.7
설비투자	-1.0	-9.8	25.7	3.7	-1.5	3.6
건설투자	-2.8	3.4	-3.7	-5.0	-0.5	1.2
재화수출	4.6	-0.2	16.0	10.5	3.2	6.1
재화수입	4.5	-7.8	18.4	8.7	2.2	5.4
고용률	59.5	58.6	58.7	59.1	59.3	59.4
실업률	3.2	3.6	3.7	3.4	3.3	3.3
경상수지	31.9	327.9	293.9	265.1	313.1	293.8
상품수지	51.7	378.7	400.8	309.5	283.1	293.8
수출	4,346.5	3,581.9	4,641.4	5,525.6	5,426.1	5,632.4
(증가율)	(11.6)	(-17.6)	(28.8)	(19.7)	(-1.8)	(3.8)
수입	4,294.8	3,203.2	4,213.6	5,216.1	5,143.1	5,364.3
(증가율)	(21.9)	(-25.4)	(31.5)	(23.8)	(-1.4)	(3.8)
소비자물가	4.7	2.8	3.0	4.0	2.3	2.5
국채(3년) 수익률	5.3	4.0	3.7	3.6	3.3	3.1
우량회사채(3년) 수익률	7.0	5.8	4.7	4.4	4.1	3.9
원/달러 환율	1,103	1,276	1,156	1,108	1,130	1,081